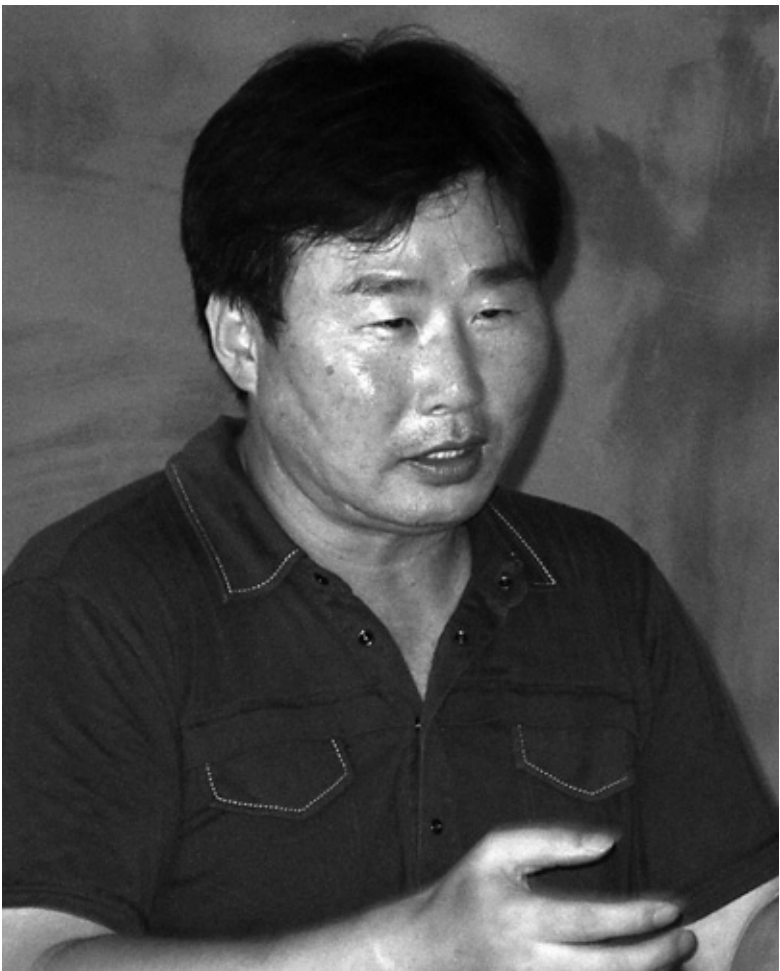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하세요, 지금이 적기!

## 연우와함께 이상근 대표이사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8월 30일 안성 활인선원에서 제2차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안세회계법인 이사 김준영 회계사가 '비영리 회계법인의 세무 회계 방법'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윤종태 팀장이 '정부의 지원자금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는 불교계 대표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 이상근 대표이사가 자신의 창업 경험담과 함께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다. 정려=천진영 기자



연우와 함께 이상근 대표는 8월 30일 예비 창업자들에게 '불교계 사회적기업이 나갈 길'을 강연했다.

### 불교가 선두에 설수 있는 찬스

반갑다연우아 의료봉사단이 한번 봉사 활동을 나가면 약 500만원씩 사용됩니다. 사회적 기업 '연우와 함께'는 이 의료봉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87명이 1억5000만 원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채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정화를 찾게 되면 '연우와함께' 같은 기업 20개를 더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변화에 앞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복지'가 이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발전 할 것입니다. 제 1영역은 정부, 2영역은 기업입니다. 제 3영역은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NGO이고 제 4영역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정부 주도하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필요해 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절반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 지속적인 발전을 해 더 많은 인원을 채용 해라' 하고 제시한 모델이 바로 사회적기업인 것입니다.

불교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구축한다면 불교계 인물이 지식경제부 장관도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미래 복지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소 변경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을 정비하는 정책은 시행할 때 실무진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 중 불자가 한사람이라도 있

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불자였다면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지명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에 항상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외부인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위해 힘써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의 직원 당 약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대학교 졸업 후 2년간 취직을 못한 사람, 가정주부로 5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실업자상태인 모든 연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5년 동안 직원 1명당 100만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간단히 말하면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의 직원 당 약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대학교 졸업 후 2년간 취직을 못한 사람, 가정주부로 5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실업자상태인 모든 연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계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은 임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자연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계가 사회적기업만 잘하면 선두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심사를 1년에 3~4차례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시로 심사해서 필요조건만 충족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합니다. 정부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명체입니다. 성장 과정에 온갖 희로애락이 있고 고난과 역경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거의 실패담으로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괴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실패담만 들어도 1~2억은 아까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수출 경쟁력 높아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특히 안전한 먹을거리에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재배되는

식품들을 확보가 쉽기 때문입니다. 식품 자체로도 수출 이 가능하고 가공해 사찰 음식으로도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우와 함께는 일본 먹을거리를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일본 관광객이 한국의 한 마티에서 카트3개를 동시에 끌고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폭풍쇼핑' 하는 장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우와함께는 일본에 안전한 먹을거리 수출에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곧 일본 생협 바이어와 일본의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방문하기로 약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찰의 나물, 약초를 직접 판매 할 수 도 있고 조리해서 사찰음식으로 판매 할 수 도 있습니다. 무공해·천연·자연 식품들을 우리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경쟁력입니다.

MRO로 연 8억 매출 도전 MRO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

관이든 대기업이든 누구든지 필요한 복사용지, 불펜, 동글레차 같은 소모성 제품들이 매일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각 총무과에서 알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해 이것을 외부 업체에서 하도록 한 것이 MRO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대 대기업은 자본을 출자해 직접 MRO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20% 구매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서울시의 MRO를 계약에 입찰신청하러 갑니다. 서울시만 해도 MRO에 해당하는 소모품에 연간 4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10월에서 공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연매출 200억 원이 되는 기업만 입찰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매출액 10억이 안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20%를 우선 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면 8억입니다. 매출액 8억을 올리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 소비자는 많다, 팔 물건이 없다

우리는 아직 소비자가 사고 싶은 상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지난해 14만 명, 올해 17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불교 제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입었던 옷이나 발우를 그 자리에 바로바로 구매 가능하게 연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1만원씩만 소비해도 17억 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없다고 하지만 제 발로 찾아오는 소비자를 놓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불교플러스센터건립추진

내년에는 좀 만드는 사람, 탐 만드는 사람 등 불교 관련 모든 사업을 한군데 모아 불교플러스센터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산전지사장 가처럼 한데 모아서 소비자가 찾기 쉽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터전이 돼 불교계가 지속가능한 복지의 선두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b>목표</b> 사회 목적(공익) 추구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b>수단</b> 영업활동 수행 수익 창출
--	-------------------------------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불교계사회적 기업 1호인 '연우와함께'를 창업하고 육성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예비 창업자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조직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필요한 인증 절차를 안내 한다. (02)733-7277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

- 조직형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인증불가: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출자 단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
- 사회목적 실현**  
5가지 사회적 목적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 돼야함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형, 기타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의 중요 회의는 임원이나 이 외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가져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하기한 6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함. (보조금과 후원금은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관·규약**  
목적, 사업내용등 10가지 법정 기재사항
-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적기업에대한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00만원, 3년간 총 500만원  
사회적기업: 연간 1~2억 원, 3년 간 총 2~3억 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권고**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20%이상 우선 구매해야한다.
  -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7만4000원)
  - 사업개발비지원**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사업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최고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최고 7000만 원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 개 명 공 고

**대한불교 표암 승가회**

제방에서 구도와 보살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경주 이씨 종친 승가단의 명칭을 「**알평 승가회**」에서 「**표암 승가회**」로 개칭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그간 알평 승가회 사무총장 능인 명익의 모임 통보는 본 표암 승가회와 무관함을 공지 합니다.

볼기 2555년 9월 16일

**표암 승가회 회장 홍산 현불**